

# 인쇄·출판 업계 사용 가장 많아 웹하드

최근 인쇄·출판 제조업계에 형성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터넷 저장 공간 서비스가 업계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직접 고객이 인쇄·출력업체를 방문하여 의뢰하고자하는 파일을 맡겼던 반면, 요즘은 '인터넷 데이터 저장 공간 서비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상 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고객이 굳이 업체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의뢰 파일을 쉽게 업체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 저장 공간 서비스 때문이다.

과거에는 직접 고객이 인쇄·출력업체를 방문하여 의뢰하고자하는 파일을 맡겼던 반면, 요즘은 '인터넷 데이터 저장 공간'

'인터넷 저장 공간'이란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일반 명사처럼 쓰고 있는 '웹하드(Webhard)'의 개념을 떠올리면 된다. 웹하드는 인터넷 접속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대용량의 파일을 전달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바이러스나 해킹으로부터 모든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저장 서비스이다.

그러나 인쇄·출판 업계에서는 웹하드(Webhard)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 FTP 서버를 이용하여 고객의 파일을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인터넷 저장 공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일반 명사처럼 쓰고 있는 '웹하드(Webhard)'의 개념을 떠올리면 된다. 웹하드는

FTP는 'File Transfer Protocol'의 약자로 인터넷 파일에 쓰이는 프로토콜의 한 종류이다. FTP 서버는 파일을 인터넷 온라인 상태에서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된다. 보통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의 경우 FTP 서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웹 공간에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하드와 업체에서 쓰는 자체 FTP 서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웹하드의 경우, 대용량의 고가 스토리지 구성과 데이콤 백본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고속으로

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웹하드의 경우, 대용량의 고가 스토리지 구성과 데이콤 백본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고속으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하는 FTP 서버는 파일 전송 속도의 빠르기와 상관없이 고객이 사용하는 라인과 서버의 상태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웹하드는 각종 문서,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등 모든 종류의 파일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우 계열과 맥킨토시에서도 지원된다. 또한 웹하드 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폴더 단위로도 쉽게 자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데이콤 웹하드 서비스의 사용층 비율을 살펴보면 인쇄·출판 업계가 데이콤의 웹하드 서비스에 가입한 전체 업종 중 20%

데이콤 웹하드 서비스의 사용층 비율을 살펴보면 인쇄·출판 업계가 데이콤의 웹하드 서비스에 가입한 전체 업종 중 20%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1순위로 인터넷 저장 서비스 사용층 중 가장 리딩 그룹이다.



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의 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고객이 굳이 업체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의뢰 파일을 쉽게 업체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접속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대용량의 파일을 전달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바이러스나 해킹으로부터 모든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저장 서비스이다.



능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하는 FTP 서버는 파일 전송 속도의 빠르기와 상관없이 고객이 사용하는 라인과 서버의 상태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



활 정도로 전체 1순위로 인터넷 저장 서비스 사용층 중 가장 리딩 그룹이다.

이러한 양상은 웹하드 서비스의 다양화를 불러 일으켰다. 개인 대상의 인터넷 저장공간 서비스 보다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어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Biz 서비스와 Co-work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웹하드 Biz 서비스는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대상 서비스로서 기업 전용 네트워크 및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고속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웹하드 서비스에 가입한 인쇄·출력 제조업의 사용 비율이 30% 이상이다. 또한 웹하드 Co-Work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독립된 웹하드를 구성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능과 제공 고객사를 위한 전용 도메인 제공 등 다양한 직접 관리 기능이 부여되어 웹하드 서비스에 가입한 인쇄·출력 제조업의 절반 이상인 60% 정도 업체가 Co-work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웹하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야말로 인쇄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웹하드 서비스는 국내 인쇄·출력 업계의 필수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테이콤 웹하드 사업부 황희경 과장은 “국내 경기 침체로 웹하드의 주 사용층인 인쇄 제조 업계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인쇄 제조업계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테이콤 웹하드 사업부는 인쇄업체의 자사 서비스 애용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월간 프린팅코리아 독자 중 선착순 50명에 한해 1GB 용량의 웹하드를 5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고자하는 독자는 prwebhard@chol.com로 문의하면 된다.